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⑦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어 전체인류의 고결한 정신유산이다. 현대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살사상은 대안을 제시한다. 생활 속에서 보살사상을 선양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가꾸는 일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불교서적을 출간한 김윤수 판사.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는 점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열렬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 '윤회'와 관련된 불교 서적을 접하게 됐고, 윤회에 대한 궁금증을 밝혀보고자 불교공부에 뛰어든 김윤수 판사. 김윤수 판사가 생각하는 보살사상과 그 실천은 무엇일까.

김윤수 판사는 2월 24일 금강선원(원장 혜가)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우리시대의 보살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윤수 판사는 "보살행의 핵심은 이타행으로 그 중 범보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자들이 범보시를 펼치기 위해 불교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라=노덕현 기자



財보시할 때는 후회없고 法보시할 때는 환희심 일어야

김윤수 판사, '우리시대의 보살도' 강연... "불법 공부해 법보시 하는 것이 최고" 주장

저는 범조인으로 오래 생활하며 불교와 인연이 깊지 않았습니. 고시공부를 절에서 했지만 진짜 불교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 판사 시절에는 동료, 선배 판사들 중 불교공부를 하는 분들이 권하는 책을 보아도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 난해한 내용으로 어떤 가르침인지 알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젊어서 불교와 인연이 닿았다면 정말 세상도 더욱 열심히 살고 불교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을 것입니.

보살사상 핵심은 이타행
보살로 살아야 후회 없어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히 다가왔습니. 인생을 되돌아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40대 중반이었습니. 우연히 서점에서 윤회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 불교의 윤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미국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대상자들이 윤회에 관해 진술한 것을 묶은 책이었습니.

저는 그 것을 보고 윤회가 정말로 있다면 내가 살아온 삶,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

지난 삶에서 살아온 것은 제쳐 두고 차체에 앞으로 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이는 자연스럽게 불교공부으로 이어졌습니. 불과 14~5년

전의 일입니. 제가 책을 내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 불교에 통달을 해 높은 수준에서 책을 편 것이 아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심자들이 난해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

'보살'은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 본인의 전신을 칭하는 말로 일반인이나 이타행을 행하는 이를 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

하지만 대승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불교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살이 정립되고 이를 유포하고 선양하게 됐습니. 보살의 원음은 보디사트바인데 보디는 아늑하다, 삼막삼보리의 보디와 같은 '깨달음', 사트바는 '유정'을 뜻습니.

대승불교에서 이런 보살을 선양하고 보살사상을 널리 퍼게 된 것은 그 근원이 있습니.

보통 우리들은 초기불교, 즉 기존의 불교가 이타행을 소홀히 해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을 널리 펴고 있다고 생각습니. 하지만 초기불교에서도 이타행의 근거가 나오습니.

<상윳따니까야>를 보면 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이 있습니. 여기에서 부처님은 수십 명의 아라한들을 각자로 보내면서 말씀하습니.

"나는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에서 모두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 대들보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천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

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이는 불교의 전도 선언문 같은 성격을 지닙니. 바로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이타의 근본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는 초기경전을 보면 잘 드러납니. 부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이타의 마음이 없었으며 이를 펼치

부파·대승 논란 떠나
보살은 이상적 인간관

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 기존의 불교교단이 수행자 자신의 수행에만 치우쳐 중생제도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

하지만 기존의 교단에서의 이런 구조로는 중생제도가 불가능했습니. 기존의 교단에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아라한이 되면 무열열반에 들어간다고 얘기습니. 즉 육신조차 남기지 않는 열반입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

생사를 초월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론구조를 위해 나타난 것이 다시 태어날 번뇌는 남겨둬 다시 태어난 이였습니. 또는 의생심, 즉 서원으로 생긴 몸을 지니고 다시 태어난 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 대승불교는 기존 교단의 이타에 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수행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설한 것입니.

위로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 하게 된 것입니.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 불교와 대승불교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 남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쳐다 보지도 않고 대승 불교는 남방불교를 하찮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폄하하는 상황인데 이런 두 불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습니.

보살사상이 출발이 어떻게 간에 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을 펼치는 것이고 불자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깨달이 여기에 있습니.

보살의 개념은 불교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납니. 그렇다면 상구 하화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펼쳐야 하겠습니.

하화는 이타의 개념인데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경전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면 '보시'라는 단어로 정리납니.

보시에는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 전하는 재보시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보시, 가르침을 전하는 범보시가 있습니. 여러 경전에서는 이러한 보시를 행함에 있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납니. 재보시를 할때 마음의 후회함이 없으며 행할 때는 환희심이 일어야 한다고 말납니. 이 중 가장 중요한 보시는 무엇일까요.

<아함경>에는 여러 천신들의 재물보시의 공덕에 대해 부처님께서 '법의 문구 하나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습니. 다른 여러 경전들도 보시 중에 범보시의 중요성을 설납니.

무외보시는 함께 수반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재물보시와 비교하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범보시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납니.

특히 현재 시대는 부처님 당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범보시가 더욱 중요습니. 많은 경전에서 몸, 골수까지 빼서 재

공부해야 배울 수 있어
어렵다고 피하면 보살 아나

보시를 하라고 합니. 현재에는 내 목숨과 몸을 버려가며 이타행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 또 재물보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많지 않지만 과거처럼 험하고 굶주려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들은 많이 줄었습니. 반면에 물질이 풍족해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들은 훨씬 많아졌습니. 스스로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기도 모른 채 맹목적인 욕망추구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

결국은 법을 전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 저는 대승불교에서, 또 이 시대의 불교에서 이타행의 실천은 바로 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습니.

하지만 범보시는 여러 보시 중에 가장 어려운 보시입니.

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그 자신이 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며 불교공부를 멀리합니. 어려워서 불교를 잘 모르고, 그 가르침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법을 줄 수 있겠습니. 보살은 어려운 길도 헤쳐서 남을 밝히는 존재입니. 경전 공부 어렵다고 해서 피한다면 보살이 아닌 것입니. 우리들이 불교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

요즘 시절에서는 범회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는 곳이 많습니. 스스로 불교경전을 찾아 읽고 모르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보살의 모습입니. 불교의 이치를 알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시대 보살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습니.

김윤수 판사는 1951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제18회)해 1981년부터 20여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일해왔다. 2001년 부장판사로 재임용된 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육조단경 읽기> (반야심경·금강경 읽기) (주석 성유식론) 등이 있다.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BESTSELLER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임규계좌 023-02-500940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주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